

# 내달부터 전기료 5% 오른다

### 정부 위기관리 대책회의 최종안 확정

### 가스요금 8, 9, 10월에 걸쳐 30~50% 인상

### '청년 고용촉진 대책' 이달 중 발표...TF 구성

도시가스 요금이 8월부터 3개월에 걸쳐 30~50%가 인상되고 전기요금은 8월중에 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안을 이같이 확정했으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근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와 관련해 '청년 고용촉진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엑스틴 호텔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8월, 9월, 11월 등 3개월에 걸쳐 총 30~50% 올리고 전기요금은 8월 중에 5% 정도, 내년 하반기에 한차례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당정협의를 거친 후 최

종 인상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용을 위주로 실시하고,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지하철·버스·택시 등 여타 공공요금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날 회의에서 정부안이 이견 없이 통과됐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날 최근 내수 둔화, 대외여건 악화 등 경직적 요인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같은 제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용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올해 상반기 협약 임금인상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해 5%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

가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는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면서 인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상반기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은 작년 3.7%에서 올해 2.5%로 둔화했지만 민간부분은 같은 기간 4.8%에서 5.2%로 확대됐다.

정부는 최근 고용사정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노동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대책 TF'를 구성해 범정부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이달 중 노동부를 중심으로 '청년 고용촉진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장별 임금교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여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 57억

### 아파트 최고 매매가 서울 삼성 아이파크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1채가 57억원에 거래돼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후 최고 매매가를 기록했다.

또 올 상반기 고가아파트 거래는 일반 아파트보다 활발하게 이뤄졌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20억원 이상의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된 아파트는 모두 106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에 20억원이상이 거래된 아파트가 월 평균 10채 안팎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 고가아파트 거래는 크게 늘어난 셈이다. /연합뉴스

## 주류값 줄줄이 인상

### 하이트맥주 오늘부터 5.6% ↑ 위스키는 지난달 4.97% 올러

맥주와 위스키 등 주류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맥주는 18일부터 전 맥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5.6% 인상한다.

이에 따라 하이트와 맥스 등 일반 병맥주 500ml는 940.87원에서 993.55원으로 오른다. 소비자가격도 대형마트 기준으로 1천100원 안팎에서 1천200원 선으로 오를 전망이다.

맥주시장 1위인 하이트맥주가 가격인상을 검토하면서 2위 업체인 오비맥주도 조만간 가격인상 대열에 동참할 전망이다.

오비맥주는 아직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정하지 못했으나 제품가를 올릴 경우 인상폭은 소비자물가 인상을 수준과 비슷한 5%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인상 시기도 맥주 상수기인 7-8월을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달 중으로 가격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맥주에 앞서 위스키도 가격이 올랐다.

디아지오는 지난달 30일자로 원저 12년산(500ml) 출고가를 1만9천900원에서 2만890원으로 4.97% 올렸고 원저 17년산(500ml)은 2만9천890원에서 3만1천810원으로 6.42% 인상했다. 원저 12년산의 경우 출시된 지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이 뛴 셈이다.

진로발렌타인도 지난달 23일 대표 위스키 제품인 임페리얼 12년산과 17년산 출고가격을 각각 5.0%, 6.4% 올렸다.

이에 따라 임페리얼 12년산 500ml는 2만1천885원에서 2만2천990원으로 5.0%, 17년산 450ml는 3만2천857원에서 3만4천969원으로 6.4% 뛰었다.

소주는 그러나 당분간 가격이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인상 시기도 맥주 상수기인 7-8월을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달 중으로 가격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코스피 모처럼 웃었다

### 국제 유가 급락·美증시 반등에 18P 상승

국제유가가 이틀째 급락하고 미국 뉴욕증시는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나흘 만에 상승했다.

17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8.16포인트(1.20%) 오른 1,525.56로 마감했다.

이날 강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를 바탕으로 한때 1,540선까지 올랐으나 장 후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상승폭을 줄였다.

16일(현지시각)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76.74포인트(2.52%) 상승한 11,239.28을 기록, 지난 4월 1일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수급개선에 대한 기대에 이를 연속 급락했고 주요 기업실적이 예상치를 넘어선 상승세를 이끌었다.

외국인은 1천365억원의 매도 우위로

29거래일째 '팔자'행진을 이어갔고, 기관도 770억원어치를 순매도했으나 개인은 1천942억원어치 매수 우위를 보였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며 1천269억원어치 순매도를 기록했다.

증권(3.47%), 전기·전자(3.21%), 의료정밀(4.77%), 운수장비(1.59%), 기계(1.22%), 은행(1.20%) 등 대부분 업종이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 미국 스프린트넥스트 인수설에 휩싸인 SK텔레콤(-1.10%)을 비롯해 한국전력(-0.51%), KT&G(-0.34%), 우리금융(-3.20%) 등이 하락한 반면 삼성전자(4.10%), 국민은행(1.35%), 현대중공업(0.81%), LG전자(2.80%), 현대차(1.63%) 등은 상승했다. /연합뉴스



여름과일 '조각품'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 농협유통센터에서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주최로 '여름 과일 특별 전시회'가 열려 수박과 참외 등 각종 과일로 만든 조각 작품을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휘발유값 첫 1,950원대

### 전국 주유소 판매 평균가격 ... 이달들어 44.1원 올라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가 전국 평균가격 기준으로 1당 1천950원대에 들어섰다.

1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9천700여곳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당 1천950.02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천950원대로 올라섰다.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이달 1일 1당 1905.92원이었으나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6일 만에 1당 44.1원(2.3%) 급등했다.

이날 경유도 전국 평균가격이 1당 1천947.75원을 기록해 1천950원대에 바짝 다가섰다. 경유 전국 평균가격은 1일 1당 1천904.41원에서 16일 동안 1당 43.34원(2.3%) 올랐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구는 휘발유 평균값이 1당 2천298원으로 전국평균 고급휘발유 가격

(1당 2천143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경유 평균가는 1당 2천56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석유제품의 소매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국제시장에서는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했다.

16일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휘발유(옥탄가 92 기준)의 본선인도(FOB) 가격은 배럴당 137.11달러로 전날보다 배럴당 6.32달러 급락했고 경유(유황 0.05% 기준) 역시 배럴당 6.03달러 내린 169.42달러를 기록했다.

휘발유 국제가격은 최근 이란을 둘러싼 정세가 악화되면서 4일 배럴당 147.30달러까지 상승했으나 11일 만에 배럴당 10.1달러 급락했다. 경유도 3일 배럴당 180.33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80달러대로 올라섰으나 12일 동안 배럴당 10.9달러 내렸다. /연합뉴스

## 중소 R&D 지원사업 '투명·간소화'

### ■ 중기청, 12년만에 제도 '손질'

### 지원절차 10단계 → 4단계로 축소 사업화 성공률 5년후 60%로 높여 '기술개발비 포인트제' ... 전용 막아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기획 단계에서 제품개발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R&D의 사업화 성공률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또한 현 10단계의 지원절차를 4단계로 줄이고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를 도입해 개발비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홍석우 청장은 17일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제도를 12년만 처음으로 대폭 손질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R&D지원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우선 현 40%대인 기술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을 5년 후 60%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기술개발→사업화'의 각 단계마다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면서 각 단계에서 성공을 거두 중소기업은 자동으로 다음 단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결형 맞춤 R&D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연구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협동조합이 R&D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창투사가 참여한 R&D 과제를 우대할 방침이다.

아직 연계된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상용화하기 힘든 '나홀로 기술'의 경우 독자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연계기술과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협동화기술 개발사업'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지원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중기청은 현재 신청에서 운용에 이르기까지 10단계에 걸친 지원절차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사업별로 마련된 관리지침을 통·통합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지원비의 전용을 막기 위해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를 도입한다. /연합뉴스

## 보양식품 수입 '붐물'

### 뱀장어·미꾸라지 등 ... 중국산 홍삼 26배 ↑

우리 국민이 애호하는 보양 식품 가운데 뱀장어 수입이 대폭 늘어났고 중국산 홍삼 수입은 26배 증가했다.

17일 관세청이 여름을 맞아 보양 식품의 수입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뱀장어' 수입은 2천700만 달러로 수입량이 급증했던 뱀장어 수입량은 올해 상반기 82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5% 급증했고 수입액도 5천804만 달러로 346% 늘어났다.

뱀장어 수입액의 87.9%인 5천100만 달러가 양식용 실험장어 수입이었으며 전체 뱀장어 수입량의 90%는 중국산이었다.

지난해 수입량이 감소했던 미꾸라지도 올해 상반기 5천250t이 수입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가 늘어났다.

반면, 봉어와 잉어 수입은 올해 상반기 각각 1천75t, 1천703t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8.5%, 26.3%씩 감소하면서 2004년 이후 연속된 감소추세를 이어갔다.

전통적으로 수입이 많았던 백삼 수입량은 올해 상반기 2만4천891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4% 급감한 대신 이 기간 홍삼 수입량은 342t으로 작년 상반기(13t)의 26.3배에 달했다.

인삼 추출물 수입량도 같은 기간 5만337t으로 47.7%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인삼류의 수입이 원상태의 인삼인 백삼에서 가공 정도가 높은 홍삼과 추출물 쪽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낙농가 - 유가공업체 납품가 협상 결렬

## 原乳 공급중단 사태 오나

원유(原乳 : 가공전 우유) 생산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가공업체 간 납품 가격 협상이 다시 결렬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원유 공급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소집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들은 원유 기본가격 인상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지난 5월 6일 1차 회의 이후 13번째 결렬이다.

회의에 처음 참석한 정부(농식품부)

측이 18.5%의 중재안을 내놨으나, 생산자(농가)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동안 생산자(농가)측 위원들은 25.7%, 유가공업체측 위원들은 17.1%를 적정 인상률로 제시해왔다.

원유 납품가격 협상을 위한 소위원회는 오는 18일 14차를 끝으로 해체된다. 만약 18일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생산자 대표 단체인 낙농육우협회 등은 원유 납품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공언해 놓은 상태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삼성전자서비스GCA	[광주]삼성전자서비스 A/S엔지니어 교육생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1	062-971-4640
동원산업(주)광주물류센터	정규직 물류관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9	062-951-0920
한국통운(주)	한국통운 광주사업소 정산/배차관리 직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7/21	02-3415-9932
홍남축산물(주)	경리, 회계업무 정규직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1	062-419-8171
한국쓰리엠(주)나주공장	[품질관리/안전관리] 엔지니어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2	061-330-7020
(주)컴스쿨	정규직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2	062-367-1150
호남pc프리카	LG텔레콤 매장관리 및 전산인력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23	062-444-2233
비오스코리아(주)	제품입출고 및 재고관리, 사무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3	062-222-1158
(주)H&T	[주5일/정규직]서부지사 SK텔레콤 114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7/24	062-350-6333
동서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대졸 신입/경력 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4	062-682-7894
(주)토담건설	건설회사 영업(입찰)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7/25	062-574-9401
(주)보루네오기구공업연구소	기구전시장/매장관리/판매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5	062-374-8847
(주)한진엔지니어링	기계설계/ AUTO CAD/ 용접/ 제관공 경력직	고졸/경력3년	2200~2400	07/26	062-602-7477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